



연오랑(延烏郎)·세오녀설화(細烏女說話)의 한 연구(研究)

A Study on the Tale of Yonoran and Seonyo(延烏郎·細烏女)

저자
(Authors) 이관일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55·56·57](#), 1972.11, 377-393 (17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5·56·57](#), 1972.11, 377-393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493>

APA Style 이관일 (1972). 연오랑(延烏郎)·세오녀설화(細烏女說話)의 한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55·56·57, 377-39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1: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延烏郎·細烏女 說話의 한 研究

李 寬 逸

目 次

- I. 序 說
- II. 說話의 背景의 考察
- III. 季節의 리듬과 原初的 表象
- IV. 供物의 祭儀의 意義
- V. 結 語

I. 序 說

古代社會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勢力이 日本列島에 크게 作用한 것으로 나타난 說話가 있다. 卽 三國遺事 延烏郎·細烏女 條⁽¹⁾에 傳承되는 說話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貴妃庫」에 관련되어 傳承되어지는 듯하다. 年代가 新羅阿達羅王 4年(二世紀 中葉)으로 되어 있을 뿐 三國史記에는 言及이 없다. 延烏·細烏의 일을 歷史的 史實로 인정하느냐의 與否는 本稿의 性格上 論外에 두고, 어디까지나 說話的 發想으로서 그 意味를 究明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說話에 대한 論議는 主로 日月神話의 陽中烏說에 集中된 느낌이 있다. 즉 日蝕·月蝕現象에 대한 原始的 思考의 說話的 實現으로 論議되어 왔다.⁽²⁾ 만드시 指摘하고 넘어갈 것은 日本學者들

(1) 三國遺事 卷一 延烏郎 細烏女 條

(2) ① 蘇在英, 「延烏·細烏 說話攷」 국어국문학 36輯 pp. 17~33

② 朴時仁, 「알타이系 天降日子說話研究」 문화비평 제 1권 제 3호 p. 484

③ 中田薰, 「延烏·細烏考」(古代日韓交涉史斷片考, 東京, 1956)

에 의해 本說話가 政治的으로 援用되었던 사실이다. 「日鮮同祖論」⁽³⁾으로, 또는 「古代日韓交涉史」⁽⁴⁾의 側面에서 理解하려고 한 것이다.

이야기 속에는 다음과 같은 要素들이 攢連되어 있다.

- ① 延鳥·細鳥가 日本으로 건너가 王位에 오르고 貴妃가 되었다는 것.
- ② 新羅에는 日月이 無光하게 되었다는 것.
- ③ 貴妃의 所織細綃로 祭儀를 행하여 日月精을 回復하게 되었다는 것.

엘리아데에 의해 論證된 바, 神話가 後代의 事實에 대한 根據를 單 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說話의 主旨는 衰弱해진 太陽빛을 回復하려고 했던 古代人의 說話의 發想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곧, 太陽의 再生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보인다. 이야기의 形式에는 差異가 있겠으나, 이런 類型的 說話가 日本의 天岩戶神話를 비롯해서 世界적으로 널리 流布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神話上의 新紀元, 달하자년 動物畏敬(Animalism)時代와 死者의 精靈의 힘이 支配的인(Animism) 時代에 이르는 全時代를 概括해 보면 野蠻人과 未開民族이 지니고 있는 解釋能力, 關心의 樣態, 概念化能力의 全歷史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最初에 人間은 짐승밖에 몰랐을 것이나, 人間周圍의 變化, 人間自身의 變化問題가 그들에게 精靈의 힘을 探究해서 特히 죽음의 問題를 研究하도록 이끌어 갔을 것이다. 거기에서 人間의 興味範圍가 알아보게 넓어짐에 따라 그 사이에 農耕民이 되고, 논밭에 미치는 太陽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未開人은 死者에의 관심을 하늘과 日輪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 太陽에 대한 考察에서 最初의 刺戟의 事件은 初期移住의 期間에 決定的으로 附與되었을 것이다. 地上의 諸民族이 넓은 地域에 걸쳐 大集團을 形成하여 移動을 시작하고, 어느 方向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들은 먼저 세상을 살피고, 세계의 構造와 해·달·별 등에 興味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觀察과 判斷이 投射된 神話에서 注意할 사실은 그들이 觀察을 太陽에만 한

(3) 金澤庄三郎, 「日鮮同祖論」 참고

(4) 註 2쪽의 ③ 참고

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의 全體系를 同時에 연관시켜 그들의 神話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애니미스트들이요, 精靈에 관해서 萬事가 通曉한 사람들은 人間의 靈魂의 運命과 太陽의 運命을 類感的으로 把握하고 同一視했던 것 같다. 또, 그들의 死者는 태양과 동무해서 他界에 내려갔다거나 내려가는 것으로 觀念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시대에는 태양에 따르는 靈魂의 이야기와 人身供犧 이야기에 의해 특징지어져 있다. 왜냐하면, 靈魂을 死後의 세계에 引導해 주고, 日出·日沒의 그 붉고 壯麗한 햇빛이 自然에 있어서 가장 壯大한 現象으로 되어 있는 神에게 至上의 供犧로서는 人身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은 極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은 初期時代에 형성된 「模型」은 農耕社會에 들어서면서 農耕의 豐饒를 齋來케 하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變貌해 갔을 것이다.

人間은 그들의 형상을 닮은 神을 만들어 냈다. 人間의 集團精神이 昇揚됨으로써 그 象徴에 投影된 神이 배어난다. 神을 알기 위해서는 神을 남게 한 人間社會를 究明, 그 集團的 恍惚狀態를 이루는 祭儀를 이해해야 한다⁽⁶⁾고 생각할 때 太陽에 대한 祭儀는 農耕民族과 密接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古代人에 있어서 太陽의 재생을 위한 祭儀는 무서운 겨울에서 농경이 시작되는 따뜻한 봄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었다. 農耕民族에게 있어서 太陽은 참 生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太陽의 強烈한 힘의 再現으로 죽음의 겨울을 追放하고자 이에 相應하는 祭儀가 表出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日蝕·月蝕과 같은 一時的인 怪變에 대한 偶發的이며 制限된 效果로써 理解될 것은 아니다. 農耕民族이 가지는 行事는 그것의 祭儀의 意味를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적어도 周期的이었고, 民俗的인 形式이 갖추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祭物로는 細絹와 같은 것을 必要로 했고, 또 이것을 保管해야 할 倉庫 「貴妃庫」를 두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5) L. Frobnius, *The Childhood of Man*. New York, 1960 (大林太良編 「神話」, 神谷美保子譯 「太陽の神話と儀禮」東京, 1969, pp. 42~43)

(6) 松本信廣, 「日本神話の研究」東京, 1946. 再版 序文

이렇게 볼 때, 延鳥·細鳥는 神話上의 人物임이 틀림없다.

II. 說話의 背景的 考察

神話上의 背景은 古代人의 環境 그것이 意識世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本 說話에서 延鳥·細鳥가 日本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地理的·歷史的으로 考察할 수가 있겠다. 차례로 推論해 보기로 하자.

1. 地理的 條件

古代社會, 즉 原始的 未開社會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다는 것은 거의 自然에 순응하는 方法에 의함으로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忽有一岩 負歸日本」으로 보아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우연한 사실이었다. 이것은 颱風과도 관련지을 수 있을 듯하다. 緯度 30度 南에서 발생하여 北上하는 颱風은 一年을 通해서 7月에서 10月까지가 大部分이다. 이때는 北半球가 南半球보다 溫度가 높은 관계로 南半球의 南東貿易風이 赤道를 넘어 北半球에 侵入해서 南西 季節風이 되어 北東貿易風과 사이에 不連續線을 이룬다. 이것이 颱風發生의 温床이 된다. 이 不連續線은 極前線과 같이 확연히 性質이 다른 두 氣團間의 境界面은 아니고, 颱風은 温帶低氣壓과 달라 거의 圓形인 等壓線을 가지고 있다. 最初 中心에서 어느 距離에 있어서 어느 速度 V로 움직이고 있던 大氣는 時計바늘과 反對로 돌면서 中心에 휩쓸려 들어감에 따라 점점 그 速度를 增加한다. 그 進路는 全部 右로 꺾이는데, 그 轉向點은 9月, 10月이 됨에 따라 차츰 東으로 옮겨가서 日本內陸을 습격하게 된다.⁽⁷⁾ 延鳥·細鳥夫婦의 不意의 渡海는 이런 側面에서 考察될 여유는 없을가?

筆者가 1971年 8月 迎日郡 東海面 石洞에 있는 「日月池」를 踏査했을 때 이곳 老人 金炳成氏⁽⁸⁾에 의하면 1940年頃 浦項上洞에 사는

(7) 坪井誠太郎外 共著 「地學」 東京, 1962, pp. 101~105 참고

(8) 1971年 8月 22日 筆者는 檀國大 黃汎江교수와 慶北 迎日郡 東海面 石洞 소재 月池와 日池를 踏査한 일이 있었다. 日池는 흔적만 남고, 月池는 옛 도승을 간직한 채 海兵隊 軍營 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찾는 사람이 없었다. 月池 西南쪽에 있는 포구나무(亭子, 당나무와 같다)

崔炳還氏 아홉 家族이 先山이 있는(石洞, 日月洞 이웃) 九萬洞에서 10월에 墓祭(九萬洞의 형상이 배(船)라고 해서 傳說에 따라 每年 10월에 祭祀한다)를 지내고 船路로 迎日灣을 向해 돌아가는 途中에 風波를 만나 日本에 흘러갔다 2~3個月만에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한다.

風向과 潮流關係를 들어 蘇在英 教授도 日本의 島根縣 地方과 慶尙道 海岸과의 연락가능성을 記述하고 있다.⁽⁹⁾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迎日縣 建置沿革 條에는 本新羅 「斤烏縣」⁽¹⁰⁾(一作烏良友)으로, 彥陽縣 建置沿革 條에는 本新羅 「居知火縣」⁽¹¹⁾으로 되어 있는 新羅 地名에 관련시켜서 日本人 學者 中田 氏は 다음과 같이 考證을 하고 있다.

「斤烏支」는 吏讀名이므로 「큰오기」라는 것이고, 「知火」도 本來 chi-bu(火·焰 등의 의미는 bu로 發音된다.)이다. 이 「큰오기」(斤烏支)와 隱岐島를 결부시켜 앞의 「都祈野」도 「鄒祈野」[uk-ki-ya] 곧 「隱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隱岐島 바로 옆에 있는 「知夫」[chi-bu] 島도 彥陽의 古名(知火)과 一致한다⁽¹²⁾고 主張했다. 이것은 上古以來, 新羅人이 계속해서 日本에 移住한 史實을 말하는 이야기로서 理解한 例다.

그는 또 “迎日灣과 隱岐島 前知夫島와는 함께 北緯三十六度, 同灣의 南栗浦(蔚山東北)는 約三十五度半의 線上에 있고, 灣과 島와의 距離는 約 二百里이므로 迎日灣(浦項), 또는 栗浦(甘浦)에서 東으로 向하면 對馬暖流를 타고 곧장 쉽게 隱岐 知夫島에 到着할 수 있다.”⁽¹³⁾고 強調하고 있다. 그는 結論에서 “延烏가 知夫島 移住後, 곧 東海를 向해 航海한 舊緣의 땅 〈烏支〉(迎日灣)의 이름을 자기의 新王國에

옆에는 延烏·細烏의 說話를 傳하는 現代式 碑銘이 있었다. 本稿에 記述된 이야기는 그곳에서 祖父 때부터 살아 왔다는 金炳成氏(60세)의 所述에 의한 것이다. 特히 本稿는 黃교수와 共同資料 踏査에서 結實된 바, 黃교수의 親筆에 길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9) 註 2 冊의 ①, p. 30.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三 迎日縣 建置 沿革 條

(11) 註 10 冊, 彥陽縣 建置 沿革 條

(12) 註 2 冊의 ③

(13) 註 2 冊의 ③, 註 2 冊의 ①, p. 30

옮긴 것인지, 또는 細鳥가 祭天迎日의 偉功을 세운 緣故地(郁祈)(野)의 地名을 옮겼음인지, 어떻든지간에 隱岐의 國名은 延鳥·細鳥가 新羅 東海邊에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前述의 疑問은 모두 解決된다고 생각한다.”⁽¹⁴⁾고 記述하고 있다. 新羅人의 日本 來往의 可能性을 考證할 자료는 歷史的으로 더 충분하다.

2. 歷史的 條件

地理的 條件에서 論述된 바 「隱岐」와 「知夫」를 본래 우리나라 東南海岸에 살고 있던 移住民들이 새로 開拓한 땅에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延鳥·細鳥 夫婦가 王權을 휘두른 地域에 限한 것 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尼師今 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脫解, 本多婆那國所在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 其國王娶女國王女, 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並寶物, 置於楨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 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 初楨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體楨而出, 宜名脫解, … 於是, 專精學問, 兼知地理. 望楊山下孤公宅, 以爲月城. 至南解王五年, 聞其賢, 以其女妻之. 至七年, 登庸, 爲大輔, 委以政事, 儒理將死曰, 先王顯命曰 吾死後, 無論子婿 以年長且賢者, 繼位. 是以, 寡人先立, 今也, 宜傳其位焉⁽¹⁵⁾

이 說話의 根柢에는 新羅初期에 國外에 살던 사람이 신라에 와서 大臣도 되고, 王位에도 올랐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신라와 日本列島와의 主된 航路는 이즈모(出雲) 地方이었고, ——多婆那國은 倭國東北 一千里라고 할 때, 이 倭國을 大和가 아니고, 北九州라고 생각한다면 出雲(多婆那國)은 倭의 東北方向에 있고 魏志 東夷傳의 距離關係記事에 의한 表現法으로는 一, 二千里쯤에 位置한 것이 사실이다. ——이 出雲地方과 北九州는 彌生時代 以來 韓國南部系統 移民의 定着地였음은 이미 史學家들에 의해 考證된 바이다.⁽¹⁶⁾

(14) 註 2 書의 ③, 註 2 書의 ①, p. 31

(15)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脫解尼師今 條

(16) 韓國文化史大系 I 「韓國民族 形成史」 pp. 329~330

脫解와 瓠公의 說話에 內包된 史實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 事實을 결부시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韓國南部移民集團에는 王子를 포함해서 貴族階層도 있었던 것 같으며, 이들이 故國과의 관계가 계통적이고 계속적이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古墳에서 나타난 遺跡·遺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¹⁷⁾

脫解와 瓠公의 說話는 倭에 있는 新羅系統의 小國이 그 故國과 緊密하게 關係를 맺어온 것을 反映하는 것 같다. 이들 小國은 故國과의 人物의 交流는 들본 細絛와 같은 生産品과 함께 寶物도 보내왔을 것이다. 說話 속에서 「瓠公宅」이라는 表現에서 볼 수 있듯이 新羅王京內에는 아마도 外來民族이 연락 據點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위의 歷史의 사실은 延烏郎·細烏女 說話를 理解하는 데도 援用은 되리라고 믿는다. 더우기 日本의 古典『出雲國 風土記』에는 우리 民族이 出雲地方에 많이 移住해서 開拓·植民하고 살았다는 這間의 事情을 말해주는 이른바 「國引傳說」이 있다.

“八雲이는 出雲國은 狹布로 된 未完成의 나라였다. 처음엔 작은 나라로 만들어졌었다. 이것 저것 합쳐 기우(作籬)라는 詔命을 받고, (八東水臣津野가) 新羅와 白山(栲叟志羅紀)의 三埵에 남은 나라가 있음을 보고 童女의 가슴과 같은 호미를 가지고 大魚의 아가미를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찢어서, 나무끼는 갈대를 갈라 놓는 것처럼 土地를 잘라서 三身 밭줄을 걸어서 서리 맞은 菰(葛)을 손에 감는 것처럼 감아쥐고, 河船을 끄는 것처럼 천천히 나라가 온다, 나라가 온다고 끌어 기운(籬) 나라는 斷崖가 많이 생긴 曲岸이었다. 그리하여 굳게 다져서 끌어 붙인 土地는 이와미(岩見)와 이즈모(出雲)의 나라의 경계가 되었다.”⁽¹⁸⁾

위 說話에서 보는 대로 新羅의 一角을 끌어다 붙인 나라(地方)라고 한 것은 앞에서 든 脫解說話와 함께 延烏·細烏의 說話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地理적으로나 歷史적으로 보아 延烏郎과 細烏女가

(17) 註 16 齋 p. 330

(18) 小島環禮 校注「風土記」東京, 1971, pp. 36~37

日本으로 간 것은 상식적인 사실처럼 생각되는데 왜 「此非常人也乃立爲王」으로 記述했을까? 王이 되고, 貴妃가 되었다는 사실은 說話의 發想法인 것 같은데 「非常人」이란 「選別된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 듯하다.

Ⅲ. 季節의 리듬과 原初的 表象

“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 降在我國，今去日本”의 部分을 蘇在英 教授는 日蝕現象으로 解釋했다.⁽¹⁹⁾ 그리하여 三國史記 始祖赫居世居西干 條에서 八阿達羅尼師今 條까지의 日蝕 사실을 소상히 조사 記述한 바 있다. 日本의 中田氏는 後漢書를 引用해서 「永壽三年 閏四月庚辰晦 日食有之」의 永壽三年은 西歷 157年, 즉 新羅 第8代 阿達羅王 即位 4年이 되므로 三國遺事의 記錄에 符合하는 사실로 比定이 되며 洛陽의 日蝕이 같은 緯度上에 있는 新羅의 迎日灣 附近에서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問題될 수 있다⁽²⁰⁾고 했다.

兩氏는 한결같이 歷史的 事實을 통해서 日蝕現象을 反映한 것으로 理解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 說話는 日蝕에 關連된 것으로 解釋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考證이 要求되고 있는 것 같다. 이 說話와 157年의 洛陽의 日蝕과는 참으로 偶然한 一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안다. 157年의 洛陽의 日蝕과 確實하게 合致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一時的인 自然現象에 지나지 아니했다. 延鳥·細鳥가 日月精이어서 日本으로 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延鳥·細鳥는 마땅히 돌아왔어야 했다. 그러나, 祭儀를 遙해서 日月을 復舊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적어도 「祭儀」라는 行爲가 마로 神話的인 한 標本을 後代에 周期的으로 紀念再現하는 것이라면, 「日月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이것은 農耕社會에 있어서 季節의 리듬을 象徵한 것으로 봄이 옳은 것 같다. 뒤에 祭儀와 關連해서 論述하고자 하거나와 日本의 太陽神話도 같은 사실로 說明되고 있다.

(19) 註 2 卷의 ①, p. 20

(20) 註 2 卷 ① p. 20. 再引

본래, 「日神」은 農耕民 사이에서 매우 널리 섬기던 神이었다. 日本의 天照大神도 그 한 例가 될 것이다.⁽²¹⁾

엘리아데는 弱화된 自然을 復活케 하는 農耕社會의 祭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農耕社會에 있어서 宗教的 經驗, 時間과 季節의 리듬이 놀랄 정도로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은 그저 空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犁의 領域——肥沃한 땅, 種子, 發芽와 開花 속에 作用하는 힘——에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聖의 領域에서 사는 일은 어떤 犁의 時間, 季節의 循環의 一部이며, 또한 그것에 의해 支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耕社會는 時間의 周期에 결합되어 간헐 있기 때문에 「목은 해」를 追放하고 「새 해」의 到來를 祝願하는 수 많은 祭祀와 「惡과 不幸」을 驅逐하고 「힘」을 更生하는 일에 관한 祭儀가 종종 農耕儀禮와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自然의 리듬은 이들 儀禮와 연관되어 합해서 그 効力を 增進한다. 存在에 관한 多少의 樂觀的 見解는 그 오랜 세월을 두고 땅과 맺어지는 관계와 季節과 맺어지는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죽음이란 存在樣式의 一時的 變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認識한다. 겨울은 결코 最後的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겨울 다음에는 完全한 自然의 復活이 오고, 새로운 無限의 生命樣式의 表象이 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實際로는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재차 最初의 質量으로 吸收되어, 다음에 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休息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리듬」에 바탕을 둔 모든 것은 어떤 드라마틱한 모멘트를 지녀야 한다. 「儀禮」에 의해서 이 宇宙의 리듬을 계속하여 유지해 간다는 것은 그들이 多方面의 矛盾된 緊張 속에서 살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²²⁾

古代社會에서는 呪術이나 祭儀의 行爲에 의해서 太陽의 運行을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21) 上田正昭 「日本神話」 東京, 1970, p. 115

(22) 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掘一郎譯 「大地, 農耕, 女性」 東京, 1970, p. 231)

에스키모인은 가을에 太陽이 北에서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絲)늘이를 하고, 봄에는 北으로 오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슬늘이를 한다.

오오스트라리아의 黑人族은 太陽의 運行을 停止시키기 위해 太陽에 直面한 나뭇가지 사이에 활을 끼워놓고, 그 운행을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모래를 뿌린다.

달의 速力을 더하기 위해 뉴우·기니여인은 달에 돌과 창(槍)을 쓰아낸다.⁽²³⁾

엘리아데에 의하면 이와 같은 行爲(類感呪術)는 古代人들의 日常生活 속에서 행해지는 太陽神에 대한 祭儀의 한 形式이 되는 것이다.

만·겐네프는 祭儀의 行爲——古代 希臘인들이 불려서 「dromenon」이라 한 것——에 의해 이야기의 內容이 表出되어지는 것을 本質의 條件으로 하여 비로소 成立되는 說話가 神話이다. 그리고, 祭儀의 行爲는 神話의 表出을 그 主要한 행동의 모티브로 삼아서 成立된다⁽²⁴⁾고 神話を 다른 많은 傳承의 說話에서 區別지어 說明하고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倭와의 敵對關係에서 빚어지는 事件記事가 50餘回나 나타나고 있다. 신라와 倭의 관계는 延鳥·細鳥 說話의 成立以前(阿達羅王四年以前), 신라 初創期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三國遺事에만 延鳥와 細鳥의 說話가 收錄된 사실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신라에는 農耕과 관련된 季節의 弱화된(一時的의 休息) 太陽의 힘을 驗化하기(復活을 促進) 위한 祭儀가 행해졌었다. 여기에 細鳥女의 所織細絹을 供犧하고, 이것을 說明하는 이야기가 傳承되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說話는 新羅가 阿達羅王 時期에 외서는 農耕民族으로 成長했을 것이고, 倭와의 관계에서 出雲地方에 移住 植民하는 신라인이 故國에 대한 貢納物이 祭儀와 관련된 데서 形成된 듯하다. 그리고, 貴妃庫와 함께 傳承된 이 說話는 바로 이 說話가

(23) J.G. Frazer, The golden bough (比屋根安定譯「宗教民俗學」東京, 1967, p. 26)

(24) 註 5 書 pp. 80~81

反映해 주는 祭儀의 神話의 原初性을 表象하고 있는 듯하다.

IV. 供物의 祭儀의 意義

이 說話의 背景인 迎日灣(迎日郡 東面), 또는 九萬洞(現九龍浦)에는 지금도 해와 달이 뜨는 光景을 보기 위해, 음력 8月을 중점해서 한 달 동안은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이곳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도 農耕祭儀와 관련하여 延烏・細烏의 神話를 再現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약 150年 전에 이곳에 「月池」와 「日池」를 파서 大平野의 짓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西北 쪽에 포구나루(亭子, 당나무와 같다)를 심고 洞祭를 春秋로 지내왔다고 한다. 婦女들이 이 나무에 祈願하면 太陽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다.⁽²⁵⁾

지금 日政末期부터 兵營이 되어 있는 이곳에는 日月池 沿革이 記錄된 現代式 碑銘이 서 있다. 이곳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었다.

「이 지방은 근국국이라는 씨족 국가의 영역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정벌하여 근오지현을 설치하였고, 제 8대 아달라왕 4년 영일현이라 고쳐 부를 때, <해달못>이라 부르다가 한문이 들어와서 <일월지>라 하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못이라 하여 <천제지>, 해와 달의 빛이 다시 돌아왔다고 <광복지>라 부른다. 이곳에 일월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천제당, 또는 일월사당이라 불렀고, 신라 시대에는 왕실에서, 고려·이조 시대에는 영일현감이 친히 제사를 지냈으며, 이 못의 물로 농사짓던 농민들이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고 이 사당에 모신 신위를 일월신이라 불렀던 연오랑·세오녀의 신위라 진한다.……」

위의 사실들은 農耕民에게 있어서 太陽은 豐饒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며 나아가서 生命의 源泉으로서 인식되었던 까닭에 太陽의 힘을 再生하고 強化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祭儀化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祭儀의 內容을 기술한 것이 本 說話 일 것이다.

(25) 註 8 참고, 金老人이 알기로도 日帝末 軍營으로 되기 전까지는 애기를 못 낳는 女子들이 먼 데서도 와서 밭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밭면 쪽 아들을 낳는다고……

未開社會에 있어서 農耕은 다른 모든 基礎行爲와 같이 單純한 俗的 技術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生命과 관련된 것이기에, 또 그 對象이 種子·밭이랑·비·植物靈 등에 깃들어 있는 그 生命의 神秘的 成長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祭儀的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農耕社會에 있어서 항상 그와 같은 形態로 계속 되어졌다.⁽²⁶⁾

延鳥郎·細鳥女 說話는 바로 그것을 說話化하여 傳承해왔던 것 같다.

이 劇의 要素를 지닌 祭儀에는 供犧가 따랐다. 農耕作業의 儀禮的 行爲에는 수확을 確實케 하려는 意圖에서 人身供犧·動物供犧가 있었다. 細鳥의 細絹는 그와 같은 供犧의 代償物로 보인다.

原始人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형태로 나타난 「힘」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힘이 언제 消盡해 버릴 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不安恐怖 속에서 살았다. 몇 千年의 세월을 太陽이 冬至에 이르러 永遠히 熱이 식어버릴가와 恐怖에 떨었다. 또, 달이 다시 떠오르지 않거나 앓을까, 植物이 永遠히 枯死하지나 않을까, 恐怖 속에서 괴로와했다. 原始人들은 植物의 成長過程의 리듬에서 보는 것과 같은 外形的인 消滅을 包含할 때의 힘, 곧 季節的 表象에 直面했을 때 더욱 不安은 심했다. 그리고, 이 不安은 「힘」의 崩壞가 人間側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층 예민해졌다. 그들은 첫 열매를 供物로 들었는데 이것은 人間과 첫 열매 사이에 作用하리라고 믿어지는 「힘」을 和解시키고, 또 「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곡식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기 위해서였다.⁽²⁷⁾

本 說話에서 細絹를 供物로 드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性格을 說明하는 대목일 것 같다. 古代人에 있어서 農耕作業은 그 자체가 하나의 儀式으로 樹立되었고, 播種期·收穫期의 作業者는 沐浴齋戒·淨衣를 입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農耕社會에서 이루어지는 一聯의 儀禮行爲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pattern을 가진다.

(26) 註 22 書, p. 230

(27) 註 22 書 pp. 253~254

女性에 있어서 배를 짜는 일은 神話나 說話에서는 단순한 勞動 이상의 의미, 卽 祭儀의인 要素를 발견할 수 있다. 延鳥・細鳥의 경우 聖스러운 배를 供繼한다는 것은 祭儀의 性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은 여러 民族 사이에 여러 形態로 傳來되어 온다.

新羅人은 陰曆 8月, 달(女性象徴)⁽²⁸⁾의 再生을 위해 祭儀로서 「길쌈」짜기를 六部の 女子들이 參與하여서 가졌다. 이것이 「嘉俳」라는 歲時風俗으로 固着이 되었던 것이다.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六部之庭, 續廊.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戲, 皆作, 謂之嘉俳.⁽²⁹⁾

이것은 보름달(女性的 生産力의 象徴)을 맞기 위한 준비, 즉 달의 再生儀禮의 모습을 表象한 것 같다.

또, 배를 짠다는 것은 緯(經度)과 緯(緯度)을 세우는 것에서 經綸을 象徴하기도 했다. 실상 배가 言語의 소임을 가진 것을 古代神話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 王에게 두 딸이 있었다. 뿌르크네와 피로메라였다. 王은 뿌르크네를 北方 나라의 王子 테레우스에게 시집보냈다. 뿌르크네가 生男했을 때 테레우스가 妻弟인 피로메라를 犯하고 소문날 것이 두려워서 그의 혀를 잘라 버렸다. 피로메라는 배에다 그 사실을 수놓아 왔다. 언니가 그것을 보고 一切의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³⁰⁾

經, 謂經緯, 綸, 謂綸綸, 言君子法, 此屯象有爲之時, 以經綸天下 約束於物 故云君子以經綸也. 〈周易〉

이것은 經綸이 있어서 天下가 經理된다는 것, 즉 秩序가 선다는 사실이다.

細綃를 供物로 삼는 意義는 女性的인 것(배를 짜다——生産的인 것)

(28) A. Morali-Daninos, *Historie des Relations Sexuelles*. 1963. (篠澤秀夫 譯 「性關係의 歷史」 東京, 1966. p. 96)

(29)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儒理尼師今 條

(30) 佐佐本理, 「ギリシヤ・ローマ神話」 東京, 1963. pp. 9~42

과 制度的 約束에서 오는 經綸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日本の『古事記』에 다음과 같은 神話가 있다.

天照大神이 忌服屋에 앉아서 神衣를 짜고 있을 때 須佐之男命이 忌服屋의 지붕을 뚫고 天斑馬의 껍질을 던졌다. 베를 짜던 天衣織女가 이에 놀라 북(梭)에 陰上을 걸려 죽었다. 天照大神은 잡아 볼 수 없어 天岩屋 가운데 숨어 비렸다. 이때 高天原은 暗黑으로 변했다. 여기에 八百萬神이 天安之河原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天照大神의 마음을 달래서 다시 天岩屋 밖으로 끌어 내어 高天原 葦原中國이 다시 밝아졌다. (31)

위의 神話에서 太陽神의 出沒과 女性의 베짜는 일과의 어떤 類感的 關係를 볼 수 있다. 斷機는(秩序의 停止, 即 혼란) 즉 太陽빛의 衰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祭儀를 베풀어 질서를 回復해야 했다. 太陽빛을 回復했다는 것은 秩序를 回復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女性과 관련하여 베틀은 農耕民이 가지는 祭儀의 의미와 비슷하게 중요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女性에 있어서 베틀은 그의 運命과 연결되어 있고, 이에 관련된 것으로 說話되고 있음을 본다.

樂章歌詞, 西京別曲 첫 연중에,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닷곤더 쇼성경 고되마른 여히브른 질삼되 님리시고.
괴시란더 우리곰 좃니노이다. (32) (筆者 罔點)

所謂, 「孟母斷機」에서,

自孟子之少也, 旣學而歸, 孟母方歎, 問曰, 學所至矣. 孟子曰, 自苦也. 孟母以刃斷其織, 孟子懼而問其故, 孟母,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 夫君子學以立名, 問則廣知, 是以居則安寧, 動則遠害, 今而廢之, 是不免于庖役, 而無以離于禍患也. 何以異于織績而食, 中道廢而不爲, 寧能衣其夫子, 而長不乏糧食哉. 女則廢其所食, 男則墮于修德, 不爲竊盜, 則爲虜役矣. 孟子懼, 旦夕勤學不息, 師事子思 遂成天下之名儒, 君子謂, 孟母知爲人母之道矣. (33) (筆者 罔點)

(31) 幸田成友, 校訂「古事記」東京, 1945. pp. 35~37. 참고

(32) 梁柱東, 「麗謠箋注」 p. 278

(33) 列女傳「鄒孟軻母傳」

이와 같은 例는 東西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女性和 배틀과의 관계는 농단이 농경 자체가 하나의 儀禮的 行爲였던 것과 같이 祭儀의 한 表象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리스 神話 속의 클로토(clotho)女神이 人間의 運命을 짜내는 것과 같이 宇宙의 秩序를 掌管하는 女神과 배틀과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한다. 위 說話에서 日本의 天照大神이 太陽의 精이라던, 細鳥女는 달의 精이었다.

細鳥女가 짠 배를 供物로 드렸다는 것은 農耕民에게 있어서 첫열매를 드리는 儀禮와도 通한다.

인디안族에 있어서 첫열매의 供犧儀禮는 惡과 罪의 淨化와 驅穢의 儀禮와 一致한다. 祭儀기간 모든 사람들은 8日間 斷食하고 吐劑를 사용해서 스스로 몸을 淨化한다. 모든 불은 다 꺼지고 司祭者가 摩擦에 의하여 點火한다. 그리하여 해는 更新된다.⁽³⁴⁾

祭儀에는 禁忌가 따르고 이것을 범했을 때 神의 怒어움을 초래한다. 여기에서 첫열매의 儀禮의 聖別과 豫備의 淨化와 社會的 再生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의 更新」을 通해서 汚染을 몰랐던 「太初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出發을 시작하는 것이다.

現實에서 舉行되는 婚姻禮式은 하나의 祭儀의 實修의 형태로 볼 수 있다. 新婦가 入場하는 길은 깨끗한 布緞(배틀과 관련된 것)을 깔게 된다. 이 純白한——일찌기 아무도 밟은 적이 없는——布緞 위를 걸어서 新婦는 新郎(太陽)을 만나는 太初의 神婚이 再現된다.

「……달도 부지런히 쫓아 하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³⁵⁾

달을 맞기 위한 길을 깨끗이 할 별을 바라보고……云云은 달의 再生祭儀의 表象이다.

本 說話에 登揚하는 延鳥・細鳥는 「日月精」으로 表現되었는데 이것은 「太初의 것」으로의 聖別된 司祭者의 人物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日本으로 건너가서도 「非常人」으로 「王位」(選別된 사람)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王位는 곧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司祭者의 存在를 의미하게 된다. 細鳥는 祭儀의 供物인 聖布를 짜는

(34) 註 22 書 p.254

(35) 三國遺事 卷五 融天師 彗星歌 條

聖處女(?)로서의 巫女다. 聖處女가 짜는 細絹는 純潔한 祭物이 될 수 있다. 延鳥와 細鳥는 俗的關係로 맺어진 夫婦가 아니라 聖別된 神聖夫婦인 것이다.

V. 結 語

神話가 古代人의 觀察과 判斷이 投射된 것이라면, 農耕社會에 있어서 植物의 成長에 絶對的 影響을 미치게 하는 太陽은 이들의 生命과 直結되는 「힘」의 存在였다. 그러므로, 季節의 리듬에서 오는 太陽의 弱化는 이들에게 不安을 초래했다. 그 「힘」의 衰弱이 人間側의 罪에서 結果된 것으로 알고 恐怖에 떨었다. 그리하여 이 「힘」의 怒여움에 대한 和解로 「힘」을 回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和解의 形態는 祭儀로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本 延鳥郎·細鳥女 說話는 「日月精」을 回復했다는 新羅人의 儀禮와 이에 따른 供儀를 說明하는 說話인 것 같다. 先學들에 의해 論議된 바 政治的으로 附會한 同根祖論⁽³⁶⁾은 現實에서 이미 論外의 對象이 되었거니와 日蝕現象⁽³⁷⁾으로 解釋하는 것도 問題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이 만약에 日蝕現象이라면 太陽에 대한 弱化和 強化의 根源的 律動的 把握이 불가능하게 되며, 弱化를 一時的인 現象으로 돌려 버리게 된다. 神話的 意義가 忘却된 日常的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神話로는 成立되지 못했을 것이다.

歷史的 事實을 깊이 考慮해서 說話를 解釋했기 때문에 洛陽의 日蝕과 地學的 관련을 맺은 것도 問題가 있다고 본다.

新羅人들에 있어서 日月精이 日本으로 渡來했다는 것은 新羅人의 行動半徑 안에 日本이라는 對象이 提起되어 있었던 것을 示唆하는 것이 되며, 太陽의 弱化라는 事實을 이와 같은 現實의 問題와 結合시킨 결과로 이해된다.

農耕民族에 있어서 太陽의 再生祭儀는 周期的인 것이었다. 이것은 植物의 生命에 깃드린 「힘」의 再現은 「시간의 更新」을 通해서 이루

(36) 註 3 冊

(37) 註 2 冊

어지고, 이 季節의 律動은 人間社會를 再生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목은 해」는 이 社會의 罪惡과 더불어 驅逐되고 가는 것이다.⁽³⁸⁾ 이 周期的인 再生思想은 다른 領域에도 擴大되어 갔는데 예를 들면, 統治權의 그것에서도 행해졌다. Initiation을 통해서 精神的 再生의 可能性에의 希望을 鼓吹하고, 또 涵養하는 것도 같은 모티브에서 理解된다.

古代人에게 있어서 죽음은 一時的인 變化에 지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絶望的인 것보다는 回復하는 方法이 문제였다. 그리고, 祭儀에는 禁忌와 供犧가 要求되었다. 이것은 古代人의 直觀에서 오는 「힘」에 대한 敬畏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本說話는 농경민에 있어서 太陽의 힘을 回復하고자 했던 儀禮의 형태를 投射하고 있다고 하겠다. 細烏女의 細絹는 太初의 創造와 관련된 祭儀的 代價物이었다.

祭儀에는 禁忌, 곧 淨化된——純潔한 供物과 司祭者가 있었다. 그러므로, 細絹는 聖別된 女性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本說話에서 延烏와 細烏는 俗世의 人物과는 다른 司祭者의 人物로 特徵化되어 있다. 俗의 世界와 隔離된 聖男·聖女(延烏·細烏)에 의해 太陽을 새롭게 하고 活力을 回復하게 했다는 原初의 祭儀에 관한 意味를 賦與하고 있다.

(38) 註 22 卷 p. 257~258